

예—. 서로서천¹⁾ 저 토산(鬼山) 으드레한집²⁾ 본산국³⁾ 난산국 본풀어⁴⁾ 올립네다.

본산국이 어딜런고. 난산국이 어딜런고.

나주 영산(羅州靈山) 금성산(錦城山)서 솟아나.

그 무을(里)에 목소(牧使)가 들민 석 달 열흘 벽일(百日)을 체우지 못하여 봉곡파지(封庫罷職)이 될 때, 그 무을에 양이목소(梁牧使) 말을 헤ಡ

『나를 목소(牧使) 시겨주민 석 달 열흘 벨일(百日) 윤삭(閏朔)을 체울노라.』⁵⁾

『예. 걸랑⁶⁾ 그리 헤옵소서.』

목소(牧使)를 시겨 삼만관속(三獻官屬) 육방하인(六房下人) 거느리고 와라치라⁷⁾ 올라갈 때,

『성주(城主)님아. 성주님아. 하매(下馬)흡서. 이 산은 영기(靈氣)가 있입네다.』

『야, 이 무을(里)에 토지관(土地官)이 헌나이지 둘이 될 수 있겠느냐?』

언만⁸⁾ 아니 가 물발(馬足)이 등등이 절아가니.

『이것이 영급(靈及)이냐?』

『이것이 영급입네다.』

단매(單馬) 단구중(單驅從)허여 와라치라 올라가고 보니, 웨지둥에⁹⁾ 청지에집¹⁰⁾ 팔칸집(八間家)을 무어¹¹⁾ 삽ಡ¹²⁾ 월얼궁(月宮)에 시네(仙女) 그뜬 아기씨가 반달(半月) 그뜬 용얼레기로¹³⁾ 쉰대장 머리(五十五尺髮) 쉬인시리¹⁴⁾ 골령시니¹⁵⁾

『어느 것이 구신(鬼神)이냐?』

『저것이 구신입네다.』

『구신(鬼神)이 사름¹⁶⁾ 될 리가 있겠느냐? 네 몸으로 환생(還生)허여 보라.』

웃아구린¹⁷⁾ 하늘에 가 부떠¹⁸⁾ 알아구린 지애(地下)에 가 부떠 천지 대맹이(天地大蠻)가 뛰여지니.

1) 서로서천: 서(西)로 서천(西天).

2) 으드레한집: 8일당신(八日堂神).

3) 본산국: 본(本). 본초(本初). 본래(本來) 태어난 곳과 그 내력.

4) 본풀어: 본을 풀어. 근본 내력을 풀어.

5) 체울노라: 채우겠노라.

6) 걸랑: 그것일랑.

7) 와라치라: 고관이 행차할 때 길을 비키라고 외치는 소리.

8) 언만: 얼마.

9) 웨지둥에: 외기둥(單柱).

10) 청지에집: 청기와집.

11) 무어: 지어의 뜻.

12) 삽ಡ: 사용되.

13) 용얼레기로: 얼레빗.

14) 쉬인시리: 설설이가 「쉰대자」에 유추(類推) 조운(調韻)된 것.

15) 골령시니: 가리고 있으니, 빗고 있으니.

16) 사름: 사람.

17) 웃아구린: 웃 아가리는.

18) 부떠: 불어.

『더럽고 누추(陋醜) 흐다. 이 모을(里)에 불질 잘 흐는 포수(砲手) 있겠느냐?』

『있읍네다.』

『개 잘 드는 정수령(鄭使令) 있겠느냐?』

『있읍네다.』

불러다가 닉귀(四偶)에 불 삼박 놓아가니. 앗일 디도¹⁹⁾ 엊어진다. 살 디도²⁰⁾ 엊어진다. 요만 흐민 어찌 흐리. 금바독도²¹⁾ 웨여간다. 옥(玉)바독도 웨여간다. 은(은)바독도 웨여간다.

헹기포에²²⁾ 똘똘²³⁾ 싸아지여²⁴⁾ 서울 종로(鐘路) 닉커리²⁵⁾ 떨어지였더니. 제주(濟州) 강씨성방(康氏刑房) 오씨성방(吳氏刑房) 메역²⁶⁾ 진상(進上) 가았다가 금(金)바독도 봉갔고나.²⁷⁾ 옥바독도 봉갔고나.

『야, 요것도 나라에 상납(上納)할 만 흐다.』

그만 데껴두고²⁸⁾ 제주(濟州)레레 응(應) 흐저 할 때. 부름 궁기²⁹⁾ 막아 베질할 수 못내 웨니³⁰⁾ 문복문점(問卜 問占) 디려간다.

『강씨(姜氏)아기, 헹기포를 클러³¹⁾ 봅서. 난디엇는 보물(寶物)이 싫구나.³²⁾ 선왕(船王)에³³⁾ 도올려³⁴⁾ 방광³⁵⁾ 삼체³⁶⁾ 누울리민³⁷⁾ 맹지와당³⁸⁾ 실부름이³⁹⁾ 시르르르 불어올 듯 흐오리다.』

아닐써라,⁴⁰⁾ 헹기포를 클러보니 난디엇는 보물이로고나. 선왕(船王)에 도올려 방광 삼체 누울리니 맹지와당(明紬海) 실부름이 시르르르르르르 불어옵둬. 열누니(溫坪里)⁴¹⁾ 수전개로⁴²⁾ 배(船)를 부찌, 맹호부인에⁴³⁾ 맹암(名嘲) 혼장 디렸더니.

『이 모을(里)에 토지관(土地官)이 흐나이지 둘이 웰 수 엊어진다. 땅도 내 땅이요. 물도 내 물이여. 주손 가정(子孫家庭) 내 주손이 웨여지니 어서 나고 가라.』

19) 디도: 앉을 데.

20) 디도: 설 데.

21) 금바독도: 금(金)바둑돌.

22) 헹기포에: 행주보자기. 보자기의 뜻.

23) 똘똘: 단단하게 감거나 싸는 모양.

24) 싸아지여: 싸지어.

25) 닉커리: 네거리.

26) 메역: 미역.

27) 봉갔고나: 주웠구나.

28) 데껴두고: 던져두고.

29) 궁기: 바람 구멍. 「부름궁기 막았다」 함은 바람기 하나 없다는 뜻.

30) 웨니: 못 되니.

31) 클러: 끄러. 풀어.

32) 싫구나: 있구나.

33) 선왕(船王)에: 선신(船神).

34) 도올려: 도루올려.

35) 방광: 제차명(祭次名).

36) 삼체: 세번.

37) 누울리민: 울리면. 또는 어떤 무제(巫祭)를 행하다의 뜻으로 씀. 예) 벽지알대김 누울리다.

38) 맹지와당: 명주(明紬) 바다. 매우 잔잔한 바다.

39) 실부름이: 실바람.

40) 아닐써라: 아닌게아니라. 아니나다를까.

41) 열누니(溫坪里): 성산면(城山面) 리명(里名).

42) 수전개로: 온평리(溫平里)의 포명(浦名).

43) 맹호부인에: 온평리(溫平里) 본향당신.

『예, 어딜 가민 임제⁴⁴⁾ 엇는 모을이 있겠읍네까?』

『해돋잇 방⁴⁵⁾ 저 토산(鬼山)을 가고 보라.』

『예.』

묵은 열룬이(舊溫坪里) 새열룬이(新溫坪里) 나아사고⁴⁶⁾ 곰배물로⁴⁷⁾ 삼달리(三達里) 황서국서⁴⁸⁾ 영끼(令旗)를 불려두고 나가는디.

하천이(下川里) 개로육서또가⁴⁹⁾ 탈상봉⁵⁰⁾ 중허리에 앗아 바독 장기(將棋) 떡떡 두더니 월궁(月宮)에 시네(仙女) ?뜬 아기씨가 넘어간다.

『남조(男子)의 기십이라⁵¹⁾ 기냥⁵²⁾ 둘 수 웃다. 어서 돈저.』⁵³⁾

산지꿀로⁵⁴⁾ 내돌으고⁵⁵⁾ 왕꼴로⁵⁶⁾ 저 토산을 들려들어 은찔 ?뜬⁵⁷⁾ 홀목이를⁵⁸⁾ 쥐여잡나.⁵⁹⁾

『얼굴은 양반(兩班)이로워 행실(行實)은 꽤씸하다. 더러운 놈 심어난⁶⁰⁾ 홀목이 기냥 둘 수 웃다.』
장도칼(粧刀) 앗아내여⁶¹⁾ 삭삭 가까두고⁶²⁾ 남수와지(藍水禾紬) 던데(戰帶)로 허허 칭칭 감아 놓고 저 토산(鬼山) 메뚜기모루⁶³⁾ 좌정(坐定)하니, 야, 그만하민 앗일 만도 하다. 살만도 허여진다.⁶⁴⁾

요왕국(龍王國)의 들려드니,

『어찌허여 네의 우의⁶⁵⁾ 늘낭늘핏내가⁶⁶⁾ 나시느냐?』

『예, 하천이(下川里) 개로육서또가 언약(言約)엇이 은찔 ?뜬 홀목을 비여잡기예⁶⁷⁾ 은장도(銀粧刀)로 가까 데꼈읍네다.』

『꽤씸하다. 개로육서또 말을 아니 들었고나. 꽤씸하다.』

후욕(詬辱)하니,

올라사며, 개로육서뜰 혼번 불러 편편⁶⁸⁾ 두번 불러 편편 식번(三番) 불러도 편편흡둬 토산(鬼

44) 임제: 임자.

45) 방: 해돋는 방위.

46) 나아사고: 나서고.

47) 곰배물로: 성산면 삼달리(城山面三達里)의 지명.

48) 황서국서: 삼달리(三達里)의 당신명(堂神名).

49) 개로육서또가: 표선면 하천리(表善面下川里)의 당신명(堂神名).

50) 탈상봉: 하천리(下川里)의 악명(岳名).

51) 기십이라: 기습(氣習). 기개(氣概)의 뜻.

52) 기냥: 그대로.

53) 돈저: 달자(走).

54) 산지꿀로: 표선면 성읍리(表善面城邑里) 지명.

55) 내돌으고: 내닫고.

56) 왕꼴로: 표선면 가시리(表善面伽時里) 지명.

57) ?뜬: 온길 같은.

58) 홀목이를: 팔목을.

59) 쥐여잡나: 쥐어잡는다.

60) 심어난: 잡았던.

61) 앗아내여: 가져내어.

62) 가까두고: 깎아두고.

63) 메뚜기모루: 토산리(토산리) 지명. 이 당시 있는 곳.

64) 허여진다: 설 만도 하다.

65) 우의: 네 위에.

66) 늘낭늘핏내가: 날피 냄새.

67) 비여잡기예: 덤석 잡기에.

山) 알당(下堂)으론⁶⁸⁾ 연불(煙火)이 나민 하천이(下川里) 고첫당으론⁷⁰⁾ 신불(神火)이 나오 신불(神火) 연불(煙火)로 언약(言約)을 흡데다.

칠년 한기(七年旱氣) 구년 숭이(九年凶年)가 지어, 한집님이 아바님 입단⁷¹⁾ 이장(衣裝)이여 어머님 입단 이장(衣裝)이여 왕대구덕에⁷²⁾ 거두설러⁷³⁾ 뛰방⁷⁴⁾ 걸어 지어놓고 서답막개⁷⁵⁾ 둘러잡아 느진덕정하님⁷⁶⁾ 거느리고 올리소로⁷⁷⁾ 연서답을⁷⁸⁾ 누렸더니, 느진덕아정하님 말을 헤워.

『상전(上典)님아, 저거 봅서. 검은여코지로⁷⁹⁾ 모을(里)에 도독(盜賊)이 근당(近當)허여 옵네다.』

제주산(濟州山)은 악산(惡山)이 뛰옵길레 모진 돌풍(突風)이 불어가니, 판대선(板子船)이 뛰계트듯⁸⁰⁾ 트었다가 모도 문⁸¹⁾ 판나 무쉐도진⁸²⁾ 요왕국(龍王國)에 바찌두고, 다리 훈착⁸³⁾ 풀⁸⁴⁾ 훈착 엇인 놈 세(舌) 줄라⁸⁵⁾ 말통입⁸⁶⁾ 못⁸⁷⁾는 놈덜이 조롬에⁸⁸⁾ 바짝 뛰와오라가니.⁸⁸⁾

『상전(上典)님아, 저거 봅서. 도독이 근당흡네다. 옵서. 어서 가저.』

물 잘잘⁸⁹⁾는 연서답을 거두설러 지어놓고 안끈⁹⁰⁾ 성창(船艙) 한⁹¹⁾ 성창을 나아사.

『상전님아, 치맷곰이⁹²⁾ 클러점수다.』⁹³⁾

『치맷곰이 클러지고 허릿곰이 클러지고, 이녁(自己) 몸이나 금추와 보저.⁹⁴⁾ 조롬이 난들⁹⁵⁾ 밋이⁹⁶⁾ 나느냐, 밋이 난들 조롬이 나느냐. 어서 듣자.』⁹⁷⁾

고찌⁹⁸⁾ 내돌으니 묵은 각단⁹⁹⁾ 새각단밧 둘려드니.

『상전(上典)님아 머리로 꿩이 눕네다.』

68) 편편: 불러도 대답이 없는 모양.

69) 알당(下堂)으론: 이 토산 여드렛당이 아래쪽에 있으므로 「알당」이라 함.

70) 고첫당으론: 하천리(下川里)의 당 이름.

71) 입단: 입던.

72) 왕대구덕에: 왕대바구니.

73) 거두설러: 거두어. 설것이하여.

74) 뛰방: 멜빵.

75) 서답막개: 빨랫방망이.

76) 느진덕정하님: 하녀를 일컫는 말.

77) 올리소로: 토산리(兎山里) 소명(招名).

78) 연서답을: 빨래. 「연-」은 조율음(調律音).

79) 검은여코지로: 토산리(兎山里) 해변의 이름.

80) 트듯: 독교(獨轎) 뜨듯.

81) 문: 모두.

82) 무쉐도진: 미상. 부서지다는 뜻인 듯.

83) 훈착: 한쪽.

84) 풀: 팔.

85) 줄라: 짧아.

86) 말통입: 말 통역(通譯).

87) 조롬에: 풍무니에.

88) 뛰와오라가니: 따라와가니.

89) 잘잘⁸⁹⁾는: 물이 질질 흐르는.

90) 안끈: 작은의 뜻.

91) 한: 큰. 관용조운음(慣用調韻音)임.

92) 치맷곰이: 치맛고름.

93) 클러점수다.: 끌려집니다. 풀어지고 있습니다.

94) 보저: 감추어 보고자.

95) 난들: 풍무니가 나온들.

96) 밋이: 밑. 여기서는 성기(性器)를 말함.

97) 듣자.: 달자(走).

98) 고찌: 다시.

99) 각단: 길이가 짧은 땀.

『꿩이 늘고 지(雉)가 늘고, 어서 듣저.』

묵은 각단 새각단밧 둘려드니 조롬에 마을에청 근당(近當)허여. 꿩 곱아난디¹⁰⁰⁾ 곱아보저¹⁰¹⁾ 머리를 숙여가니 뒤으로 늘려들어 은찔 ？뜬 홀목을 비여잡나. 연적(硯滴) ？뜬 젓통을¹⁰²⁾ 비여 잡아 이챙저챙 좌우행천,¹⁰³⁾ 금시상(今世上)을 부려간다.¹⁰⁴⁾

예묻은 동산¹⁰⁵⁾ 쌍묘산(雙墓)은 무어두고 어딜 가료.

흔정(魂精)은 가시리(伽時里)¹⁰⁶⁾ 펜안 강씨(康氏) 아기신디¹⁰⁷⁾ 간다. 강씨(康氏)아기 웨뜰아기(獨女) 이어방에¹⁰⁸⁾ 식쿨방에¹⁰⁹⁾ 이어방에 물보리¹¹⁰⁾ 방에 지엄구나.¹¹¹⁾ 식굴방에가 새글러간다.¹¹²⁾ 신대잣(五十五尺) 머리는 총배 ？찌¹¹³⁾ 감아지고 춤씰 ？뜬¹¹⁴⁾ 모음은 만제중에¹¹⁵⁾ 흐터지고 일가방상(一家親族) 몰라지고.

요만호민 어찌호료.

조시문이¹¹⁶⁾ 불러 문증(問占)을 디렸더니.

『마을에청¹¹⁷⁾ 당해여시니 큰굿이나 허여 봅서.』

『걸랑 그리 허여.』

불분¹¹⁸⁾ 택일(擇日) 불분 정성(精誠) 허여다가 큰굿을 시작하여 초감제가¹¹⁹⁾ 넘어들어 가니, 굽도 잡도¹²⁰⁾ 못호던 아기가 오돌랑이¹²¹⁾ 일어나 나사¹²²⁾

『아바님아, 어머님아, 어느 누게¹²³⁾ 울은¹²⁴⁾ 굿입네까?』

『너를 살리자 굿이노라.』

『신의무당¹²⁵⁾ 어느 누게 살리자 굿이냐?』

『아기씨상전(上典) 살리자 굿입네다.』

100) 곱아난디: 숨었던 곳에.

101) 곱아보저: 숨어 보고자.

102) 젓통을: 젓통이.

103) 좌우행천: 성교(性交)함을 일컫는 말.

104) 부려간다: 버려간다.

105) 동산: 토산리(禿山里)의 지명. 이 당신(堂神)의 묘(墓)가 있다는 동산.

106) 가시리(伽時里): 표선면(表善面) 가시리(伽時里).

107) 아기신디: -한테. -에게. 여격(與格).

108) 이어방에: 방아노래의 선·후렴구(先後敍句).

109) 식쿨방에: 식쿨방애와 같음.

110) 물보리: 보리를 찧기 위해 물에 담가 물기가 오른 보리.

111) 지엄구나: 찧고 있구나. 찧는구나.

112) 새글러간다: 사이가 틀려간다.

113) 총배 ？찌: 총바. 총으로 끈 밧줄.

114) ？뜬: 참실 같은.

115) 만제중에: 미상. 정신이 혼미(昏迷)함을 뜻한 말.

116) 조시문이: 점자(占者)의 이름.

117) 『마을에청: 「마을」은 동리의 사령(死靈)을 뜻하고 「-청」은 여렷을 일컬을 때 붙이는 접미사.

118) 불분: 불(火) 본(見). 매우 바쁜 뜻.

119) 초감제가: 청신(請神)하는 제차명(祭次名).

120) 잡도: 「굽도」에 맞춘 조운구.

121) 오돌랑이: 누웠다가 매우 가볍게 일어나는 모양.

122) 나사: 나서서.

123) 누게: 누구.

124) 울은: 위해서 하는.

125) 『신의무당: 신의 무당(巫堂). 무격(巫覲)을 일컫는 말.

『나를 살리자 굿이민 쾌상(櫃床) 연갑(硯匣) 열고 보민 아바님 첫(初) 서울 간 때 물멩지(-明紬) 도 동에전¹²⁶⁾ 강멩지(-明紬)도 동에전 이시니. 마은대자(四十五尺) 끈어놓아 이 내 간장(肝臟) 풀려줍서. 서른대자(三十五尺) 끈어놓아 이 내 간장 풀려줍서. 수물대자 끊어놓아 이 내 간장 풀려줍서. 무친¹²⁷⁾ 간장 풀려줍서.』

쾌상(櫃床) 연갑 옮고 보니 물멩지(水禾紬)도 도에전 강멩지(-明紬)도 도에전 이서¹²⁸⁾ 내풀이니 청(青)만주에미¹²⁹⁾ 흑(黑)만주에미 블루 몰라¹³⁰⁾ 죽어시니.

『이는 어찌하여 좋으리요. 대백지(大白紙) 훈장 내여 놓서.』

대백지 훈장 내여 노니. 그 얼굴에 그 서능(形容)에 메치기상¹³¹⁾ 그려놓고 열두석에¹³²⁾ 노념만판¹³³⁾ 허시읍고 지어진봉허여가니¹³⁴⁾

『이만 허여 신병(身病) 아니 좋겄읍네다. 우리 조롬에¹³⁵⁾ 마을에청 이서지니 군줄(軍卒) 나줄(羅卒) 데접(待接)허여주옵소서.』

『어찌하민 좋으리요.』

밧갈쉐를¹³⁶⁾ 끊어내여¹³⁷⁾ 쉘(牛)잡아 전물제(牲物祭) 닥(鷄)잡아 전물제 지어진봉(進封)하워.

『요리 허여도 신병(身病)이 시원이 좋지 아녀겼읍네다.』

『어찌호민 좋겠느냐?』

『큰굿허여난 딘 뒤맞입네다.¹³⁸⁾ 베(船)는 짓으민 연신맞입네다.¹³⁹⁾ 집은 짓으민 성주맞이웨다. 베(船)를 짓어 뒤맞이를 허여 줍서.』

『어서 걸랑 그리호라.』

황기도치¹⁴⁰⁾ 둘러메고 굴미굴산¹⁴¹⁾ 올라가서 벡가짓 낭¹⁴²⁾ 비여잡아 어슥비슥¹⁴³⁾ 가까다가 어작선을¹⁴⁴⁾ 지어 놓고, 곳으로¹⁴⁵⁾ 올라사민 초기(樵楫) 진상(進上)허여 간다. 중산촌(中山村)으로

126) 동에전: 전(全) 동.

127) 무친: 맷혀진. 응결(응결)된.

128) 이서: 있어.

129) 청(青)만주에미: 작은 뱜..

130) 몰라: 바깥 말라.

131) 메치기상: 가기상(假氣像). 「메치-」의 뜻은 불명확(不確)하나 죽은 뱜의 모습을 그린 것을 「메치기상」, 익사(溺死)해 찾지 못하는 시체를 짓으로 가조(假造)한 것을 「메치매장」이라는 식으로 씀.

132) 열두석에: 열두거리와 같은 말. 큰 굿을 할 때 하나의 제차(祭次)가 끝날 때마다 「석살림」을 하는데, 4당클의 큰굿에는 석살림을 열두번 하게 되므로 「열두석」이라 하고 중당클(三當클) 굿에는 여섯석. 앉은제(앉아서 북, 장고만 써서 하는 굿)에 세석을 놀게 됨.

133) 노념만판: 만판 놀기.

134) 지어진봉허여가니: 진봉(進封)해 가니. 「지어-」는 조운음(調韻音).

135) 조롬에: 꼬무니에. 뒤에의 뜻.

136) 밧갈쉐를: 밧갈소. 곧 빈우(牝牛).

137) 끊어내여: 끌어내여.

138) 뒤맞입네다: 큰굿이 끝난 후 1주일 만에. 굿을 할 때 대접 못받은 신들이나 하위신(下位神)을 대접하는 뜻으로 하는 굿.

139) 연신맞입네다: 배를 신조(新造)했을 때나 출어시(出漁時) 풍어(豐漁)를 비는 뜻으로 배에서 하는 굿. 보통 「연신」이라고 함.

140) 황기도치: 「황기」나 「도치」나 모두 도끼.

141) 굴미굴산: 매우 깊은 산이란 뜻으로 씀.

142) 낭: 백가지 나무.

143) 어슥비슥: 경사(傾斜)지게의 뜻.

144) 어작선을: 고기낚이 배.

145) 곳으로: 숲(藪).

느려사면 댕유지(唐柚子)여 소유지(小柚子)여 미이깡(密柑)에 거언감(金柑)에, 식손(三指) 벌린 고와리여,¹⁴⁶⁾ 두손(三掌) 납작 콩느 물에,¹⁴⁷⁾ 코송코송¹⁴⁸⁾ 미나리체 지어진봉(進封) 허여간다. 헤각(海角)으로 느려사민¹⁴⁹⁾ 동이와당(東海一) 대전복(大全鰐) 서이와당(西海一) 소전복 우미여,¹⁵⁰⁾ 전각이여¹⁵¹⁾ 천초(天草)여, 진상(進上) 추어실러¹⁵²⁾ 배(船)를 부찌가니, 맹지와당(明紬海) 실부름이 시르르 불어가 아기씨 신벵(身病) 좋은 법입네다.

한집님은 채명(清明) 삼월(三月)이 나민 궁기 궁기¹⁵³⁾ 솟아나고 구시월(九十月) 산강일(霜降日) 이 뒤민 궁기 궁기 쉬여 들던¹⁵⁴⁾ 어진 한집은 동순력(東巡歷) 서순력(西巡歷)을 돌암시민¹⁵⁵⁾ 무지훈 인간(人間) 들려들어 타살(他殺)하고 선달후민¹⁵⁶⁾ 얼(魂)은 여리고 신(神)은 부뜬¹⁵⁷⁾ 조손 가정(子孫家庭) 당허여 가민 큰굿에 열두석 노념 받고 앗인제¹⁵⁸⁾ 제삼석¹⁵⁹⁾ 노념 받던 한집입네다. 강씨(康氏) 애긴 상단궐(上丹骨) 오씨(吳氏) 애긴 중단궐 한씨(韓氏) 액긴 하단궐(下丹骨) 무어 오던¹⁶⁰⁾ 영급(靈及) 좋은 조상(祖上).

오동짓들(十一月)은 초일궤(初七日) 초으드레(初八日) 여릴궤(十七日) 여레드레(十八日) 쑤무일궤(二十七日) 쑤무으드레(二十八日) 물(水)이 더워 시뉴월(六月)도 초일궤 초으드레 여릴궤 여레드레 쑤무일궤 쑤무으드레 제일(祭日) 받던 어진 한집입네다.

조손가정(子孫家庭)에 열두승엄(十二凶驗) 주어가민 지어진봉(進封) 받아오던 영급(靈及) 좋은 한집님.

불쌍한 조손덜 기자¹⁶¹⁾ 구지령¹⁶²⁾ 허물 징상(徵狀)이랑 다 걷게 허여 줍서. 혼 이 굿입네다…….

- 表善面 城邑里 男巫 韓元平 口誦

현용준, 『제주도 무속자료사전』, 신구문화사, 1980, pp.712-721.

146) 고와리여: 고살.

147) 콩느 물에: 콩나물.

148) 코송코송: 냄새가 구수함의 표현.

149) 느려사민: 내려서면.

150) 우미여: 우무. 천초(天草).

151) 전각이여: 청각(青角).

152) 추어실러: 쳐실어.

153) 궁기: 구멍 구멍마다.

154) 들던: 쉬어들어가던(休入).

155) 돌암시민: 돌고 있으면.

156) 선달후민: 「타살」에 맞춘 조운구.

157) 부뜬: 빠듯한.

158) 앗인제: 심방(神房) 1인이 앉아서 북, 장고만 써서 하는 작은굿.

159) 제삼석: 석살림을 세 번 함의 뜻. 또는 푸다시 따위 굿을 한 자리에서 세 번 되풀이함의 뜻.

160) 무어오던: 맷어오던.

161) 기자: 그저.

162) 구지령: 굿은.